

기고

시민 신고로 완성되는 소방 안전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스프링클러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사소한 실수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을 완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법행위는 '습관'이 되고,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자"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야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구 앞에 적치된 물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연기 확산이 조금만 더 빨랐어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시설은 이전에도 시민 신고로 비상구 관리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은 그대로 방치됐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 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인상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민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본다. 소방관이 모든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은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한다. 출근길에 본 막힌 비상구, 장사를 준비하며 본 방화문 고정, 창고 현관에 가려진 소화기.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허위나 중복 신고는 제외되는 등 공정성도 함께 담보하고 있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Table with 2 columns: 편집인/총괄, 발행인/대표이사. Includes contact info for 정길화 and 박신주.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좋은 모습만 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순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지 않을까. 욕심 따지가 타지 않게 붙어 있으면 성서에서처럼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6·13 지방선거 출마자 세평인지 꼭 필요

세 정도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만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런 생각들이 온갖 욕심에 젖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수명이 이미 지난 사람들 까지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물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과정은 생각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수많은 악행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막하 선거철에 돌입한 것 같다. 정체 불명의 문자들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수많은 출마예정자들이 뛰고 있다. 이미 프랑카드도 난무 중이다.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출마자들 중의 대부분은 낙선할 것이다.

낙선과 동시에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참으로 딱할 일이다.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잘 검증하고 나서 출마하길 바란다. 헛된 욕심만 앞세우지 말고, 자고로 정치는 수기치인이라 했다.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먼저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의 어려움, 부조

화 등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만큼 정치란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정치를 한다면 말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파악할 것이 많다.

특히 출마자의 가족들에 대한 세평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가족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오래전에 증명된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5.6.~1939.9.23.오스트리아)심리학에서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구강기, 항문기를 거쳐 남근기(3세~6세)에는 특히 양심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양심과 비양심의 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형성된 성격은 평생을 간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세평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

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울겨울은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음력 11월 21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and advice.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